



‘안착’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의 자체 연습경기에서 백팀 7번타자 김민식(왼쪽에서 두 번째)이 3회 1사에서 중견수 키 넘는 타구를 날린 뒤 3루에 안착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목표는 당연히 가을야구…키 플레이어는 김호령”

윌리엄스 감독

양현종·전상현 공백 메우기 초점
이의리 깜짝 호투에 천군만마
임기영 이어 5선발은 김현수
불펜, 루키들 호투에 행복한 고민

타자, 부상 없어 경기 운용 폭 넓어
최형우·나지완 등 베테랑 든든

KIA 타이거즈의 윌리엄스 감독이 ‘건강함’, ‘경쟁력’, ‘꾸준함’으로 새 시즌을 연다.

KBO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윌리엄스 감독은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를 끝으로 2021시즌 준비를 끝냈다.

코로나19여파로 국내에서 진행된 캠프를 통해 그는 체력부터 새로 다졌다. 그리고 선발 양현종, 마무리 전상현이 빠진 마운드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윌리엄스 감독은 “모든 선수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왔다는 부분이 캠프 성과라고 생각한다. 선발진이 던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점도 소극이다”고 언급했다.

선발진에서는 이의리가 깜짝 호투로 윌리엄스 감독의 시름을 덜어줬다. 이의리를 2선발로 낙점한 윌리엄스 감독은 신인인 만큼 세심하게 첫 시즌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관리하면서 시즌을 보낼 계획이다. 이닝이라든가 투구수는 그날 경기에 따라서 조절할 것이다”며 “일요일(4일) 피칭 뒤 5일만 한번 하고, 이후 1주일 간격으로 등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에 쉬는 날짜를 늘릴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의리가 가세한 선발진에서는 브룩스, 멤덴, 임기영과 함께 1일 경기에 나선 김현수가 마운드 스



타트를 꿇을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을 가장 고민하게 한 부분은 불펜이다. 그는 마지막 연습경기에서도 김현수를 제외한 투수들을 1이닝씩 기용하며 선택의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젊은 투수들의 성장세는 ‘즐거운 고민’을 안겨줬다.

윌리엄스 감독은 “가장 고민을 한 부분이 불펜이다. 젊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줬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서 고민했다”면서도 “경험치를 얻으려면 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젊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요청한 것

들을 잘해주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웃었다.

공격 부분에서는 ‘날씨’가 아쉬움이 됐다. KIA는 앞서 비와 미세먼지로 시범경기 3개임을 소화하지 못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꾸준하게 경기를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리듬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부분은 100%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팀이 동시에 해쳐나가기야 하는 숙제다”며 “시즌 시작하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올 시즌에도 센터라인을 강조한 윌리엄스 감독은 김호령을 ‘키 플레이어’로 꼽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센터라인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 포수들이 좋은 캠프를 보냈다. 지난 시즌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좋은 모습 보여줬고, 왼손 포수 2명과 오른손 포수 2명이 있다”며 “김호령이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호령은 리그 최고 수준의 중견수다. 얼마나 좋은 타석을 꾸준히 많이 가져가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다”며 “김호령이 결과를 낸다면 최고의 수비력을 가질 수 있다. 타격 면에서 모든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어버리지 않게 하나하나씩 진지하게 훈련했다.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시즌 ‘꾸준함’을 강조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에도 같은 키워드를 이야기한다. 그는 꾸준함과 세밀함으로 전력을 극대화 해 ‘포스트 시즌’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윌리엄스 감독은 “당연히 포스트 시즌 진출이 목표다.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경기를 하고, 스스로 지는 경기를 하면 안 된다. 기회가 왔을 때 살려야 한다”며 “생산성 있게 이닝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올 시즌 타선을 보면 움직임이 더 좋아졌고, 스피드도 빨라졌다. 김선빈, 최형우, 나지완, 터커 등 베테랑들은 준비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세밀한 부분을 많이 찾아야 한다. 과감한 주루 플레이, 과감한 번트, 주자 상황에 따라서 밀어치는 부분 등을 세심하게 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지막 자체경기, MVP는 앤서니 코치

선수 부상방지 위해 경기 투입
대수비·대주자로 맹활약

7회말 화이트팀의 주자가 슬라이딩으로 홈에 들어오자 양팀 덕아웃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졌다. 화이트팀 덕아웃에서는 ‘MVP’라는 찬사도 쏟아졌다. 1일 KIA의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앤서니 코디네이터 코치였다.

KIA는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화이트팀과 블랙팀으로 나눠 연습경기를 치렀다.

개막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위해 소수 인원으로 진행된 경기, 윌리엄스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부상’이었다.

경기 전에 윌리엄스 감독은 “모든 선수가 무리없이 건강하게 연습경기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앤서니 코치가 특별 선수로 투입됐다.

4-2로 화이트팀이 앞선 6회초 수비 시작을 앞두고 화이트팀 우익수 최원준이 벤치의 꼴을 받고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최원준은 앞서 세 타석을 소화하면서 경기감각을 조율한 상황. 수비 상황에서 혹시 나옴지 모르는 부상을 염려해 윌리엄스 감독이 최원준을 불러들인 것이다.

최원준을 대신해 앤서니 코치가 글러브를 끼고 외야로 향하며 시선이 집중됐다.

7회말 화이트팀의 공격 상황에서는 최형우의 대주자 역할을 맡았다. 2사에서 최형우가 좌측 2루타로 출루하자 벤치가 대주자 사인을 냈고, 앤서니 코치가 헬멧을 넘겨 받아 2루에 섰다.

앞선 수비 상황에서는 공이 오지 않아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타석에서 선 김원준이 우전 안타를 날리자 앤서



니 코치가 빠르게 3루를 돌아 홈으로 향했다. 이어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마지막 캠프 미팅에서도 앤서니 코치는 ‘MVP’로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기를 통해 KIA는 마운드 최종 점검을 했다.

선발진 막차를 탄 김현수가 4.2이닝을 소화했고, 화이트팀의 김유신, 고영창, 장민기, 김재열, 이준영, 정해영, 이승재, 박준표가 1이닝씩 던지면서 마지막 실전에 나섰다.

블랙팀에서는 장현식, 변시원, 박진태, 이준형이 불펜으로 출격했다.

타석에서는 ‘포수’들의 타격이 뜨거웠다.

블랙팀 한승택이 김재열을 상대로 투런포를 날리며 눈길을 끌었고, 백팀의 김민식도 첫 타석 2루타에 이어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타를 날리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캡틴 나지완 “누가 약체라 하나…우린 준비 끝났다”

선수들 ‘평가 뒤집겠다’ 의지 충만
이기는 경기 위해 톡톡 뭉칠 것

“원팀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캡틴’ 나지완이 팀워크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올해로 프로 14년 차 베테랑, 중심타자,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나지완은 ‘하든 대로’ 평정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생각이다.

나지완은 “개인적으로 시범경기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에 신경 썼다. 본 시험에 맞춰 내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며 “책임이 많아졌지만 시즌을 시작하는 마음은 비수한 것 같다. 대신 팀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은 더 커진 것 같다. 하든 대로 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타격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약체’로 평가받는 KIA. 나지완은 ‘원



팀’으로 이 평가를 뒤집겠다는 각오다.

나지완은 “우리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선수들이 잘 알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극받아서 한 마음으로 잘해주면 좋겠다”며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 준비 정말 잘했다. 부상

선수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여러 선수 활용할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 나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주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누구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두 다 올 시즌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원팀이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팀’을 강조하는 나지완은 개막 한 달을 중요한 무대로 꼽았다.

나지완은 “초반에 감당될다고 경기를 한다. 우리가 이 중요한 한 달을 잘 버티면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팬분을 개막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다. 선수들도 기대감으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했다. 올 시즌에는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챌린지 코인’에 담은 원팀정신

감독, 사비 들여 제작 선수들 격려
주장 나지완도 ‘행운의 2달러’ 선물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챌린지 코인’을 통해 ‘원팀’을 다짐했다.

KIA는 1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앞서 전체 미팅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윌리엄스 감독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윌리엄스 감독이 사비를 들여 제작한 선물은 ‘타이거즈 챌린지 코인’.

윌리엄스 감독은 2021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소화한 선수와 코치 전원에게 코인을 선물하며 그동안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타이거즈 챌린지 코인은 KIA타이거즈 팀원이라는 자부심과 동료들과의 연대의식을 마음에 새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겠다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선수단 모두가 시즌 내내 이 코인



을 품에 지니며 의미를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인을 받은 선수들은 ‘우리는 한 팀’이라는 연대의식과 팀을 위한 헌신을 다짐한 것”이라며 “항상 팀과 동료들 먼저 생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캡틴’ 나지완도 이 자리에서 선수단에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나지완은 올 시즌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최상의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담아 ‘행운의 2달러’를 선수단에 선물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